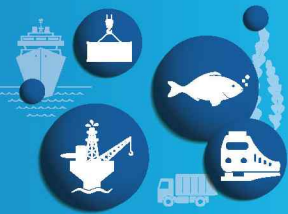




# 중국리포트

##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21-12호  
 2021년 6월 30일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 ■ 중국의 신선식품 수출입 규모 (단위 :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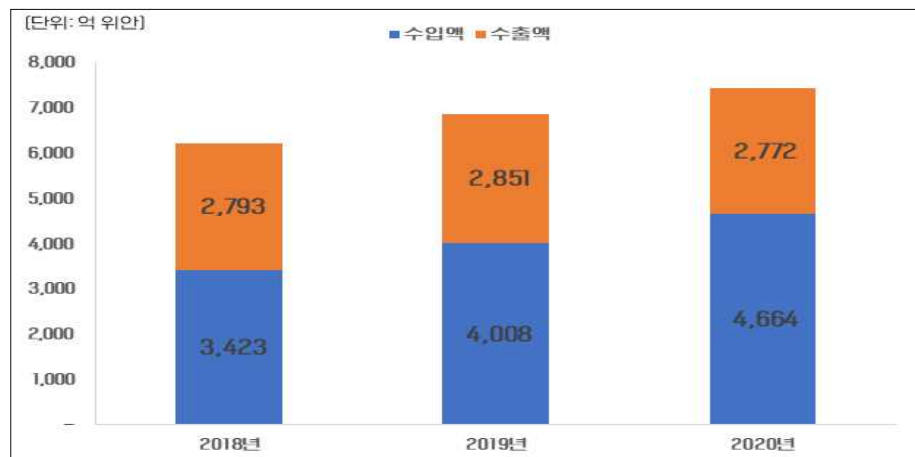
구분	수입	수출	합계
2018	3,423	2,793	6,216
2019	4,008	2,851	6,859
2020	4,664	2,772	7,436

자료 :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식품 수출입 통계



자료 : 중국물류구매연합회 통계를 바탕으로 KMI 작성.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규모(2018-2020년)

중국물류구매연합회 농산물공급사슬 분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신선식품 수출입 규모는 7,43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이 중 수출은 2,77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반면, 수입은 4,66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2020년 중국의 신선식품 수입액은 연평균 16.4%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신선식품 수입을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국가로부터 1,800억위안(점유비 32.7%) 어치를 수입하였고, 다음으로 대양주 1,380억위안(24.8%), 북미주 1,000억위안(18.0%), 유럽 890억위안(16.0%)를 각각 수입했다. 주요 수입품을 보면 유럽으로부터는 주로 프리미엄 수산물 및 유제품, 육류를 동남아로부터는 주로 과일, 수산물과 향료를 수입했다. 미주로부터는 주로 해산물을 수입했는데, 이중 미국으로부터는 과일 및 야채, 계란, 우유 등 농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입,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부터는 육류 및 내장을 가장 많이 수입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는 계란, 우유 및 그 제품, 육류 등을 수입했으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수산물 제품, 그리고 소량의 고급 특색 과일과 일부 유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중국의 신선식품 수출입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7,5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 저자

长安大学 中韩物流研究院  
리저오레이(李兆磊) 부교수  
长安大学 经济与管理学院  
왕가오제(王高洁) 인에예(尹叶叶)  
대학원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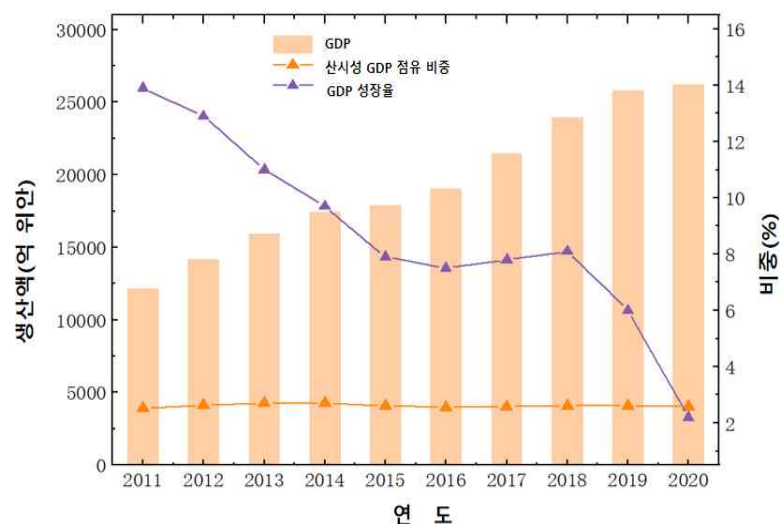
산시성(陕西省)은 중국 대륙의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부이다. 산시성은 중국 서부 개발 전략을 실행하는 교두보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서 중요한 국제 자원 집약 플랫폼과 '일대'와 '일로'를 연결하는 내륙형 허브이다. 산시성은 '일대일로'와 '쌍순환' 정책의 발전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역발전 전략을 관철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 수준을 향상시켜서 한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자원 최적화 배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산시성은 내륙 배후지에서 개방의 선두로, 상하이와는 동서로, 하이난과는 남북으로 서로 호응하는 쌍방향 발전 구도를 형성하여 '일대'와 '일로'의 육해연동(陆海联动) '양 축(双截棍)'을 구축하고 있다.

### 1 산시성 경제 발전 현황

#### 1.1 안정적인 성장세, 산업 구조의 지속 개선

2011년부터 2020년 산시성의 GDP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2011년 GDP는 12,175억 위안에서 2020년 26,182억 위안으로 매년 안정적인 성장 속도를 보였다. 경제 발전도 속도 강조에서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2020년 산시성 제 1, 2, 3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1] 2011년-2020년 산시성 GDP량 및 성장률



자료 : 중국 통계국과 산시성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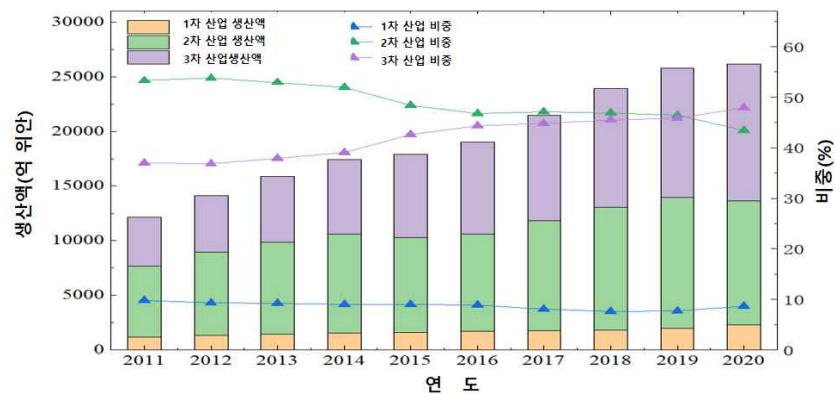
1)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MI 중국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제1차 산업 생산액은 2011년 1,187억 위안에서 2020년 2,268억 위안으로, 제2차 산업 생산액은 2011년 6,484억 위안에서 11,363억 위안으로 2배 증가했다. 제3차 산업은 2011년 4,503억 위안에서 2020년 12,552억 위안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시성의 3차 산업 점유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산시성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하며, 산시성의 경제발전을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림 2] 2011년-2020년 산시성 제3차 산업 생산액 및 산업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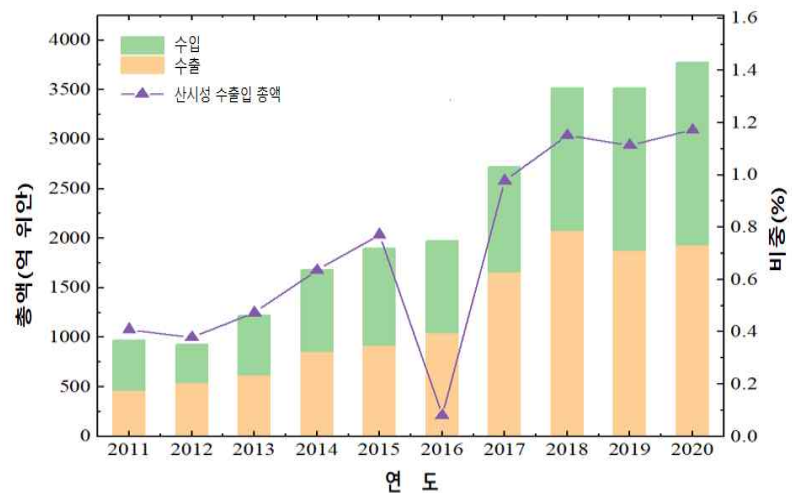


자료 : 산시성 통계국

### 1.2 대외 무역은 전체적으로 안정, 개방 수준은 점차 향상

산시성의 수출입 총액은 2011년 967억 위안에서 2020년 3,772억 위안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수출입 총액에서 산시성의 수출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41%에서 2020년 1.17%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산시성의 대외 개방 수준이 끊임없이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3] 2011년-2020년 산시성 수출입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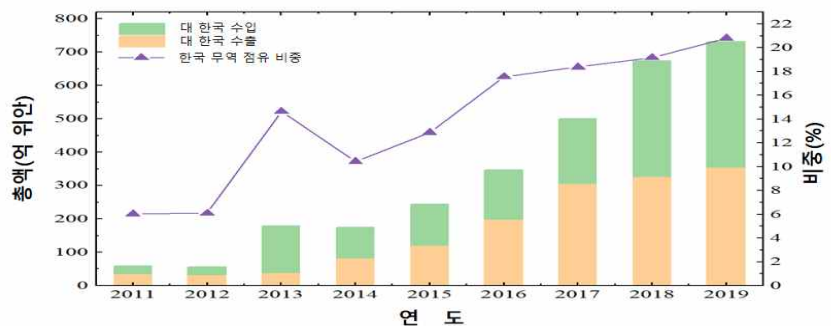
자료: 산시성 통계국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국가별로 보면 산시성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2011년 58억 위안에서 2019년 73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한국과의 무역 총액이 산시성 대외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02%에서 2019년 20.8%로 증가했다. 한국의 산시성 실질 투자액은 2011년 29만 달러에서 2019년 24.06억 달러로 증가 했고, 산시성 전체 외국투자액의 31.2%를 차지했다. 그만큼 한국은 산시성의 중요한 국제무역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 4] 2011년-2020년 산시성과 한국 무역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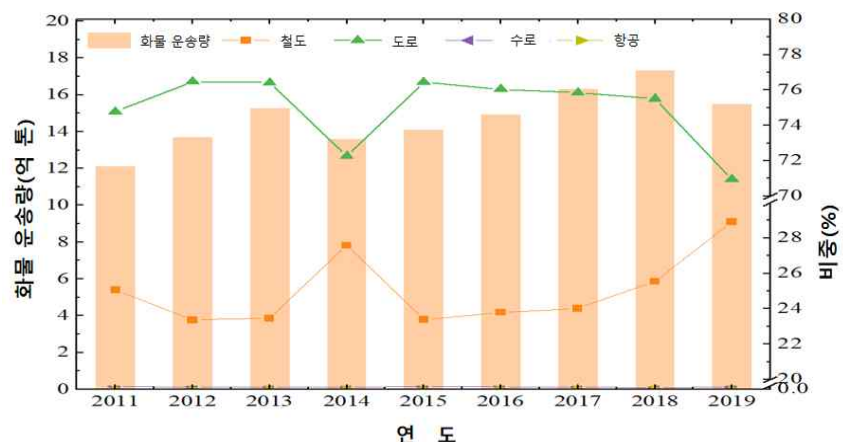


자료 : 산시성 통계국

### 1.3 현대 물류 지속 발전, 서비스 체계 완성

산시성 물류 인프라 건설로 철도 영업거리는 2011년 4,449km에서 2019년 6,224km로, 도로 노선은 2011년 151,986km에서 2019년 180,070km로, 국제 취항 도시는 2011년 44곳에서 2019년 71곳으로 늘어나는 등 현대종합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시성의 화물운송 총량은 2011년 120,916만 톤에서 2019년 154,758만 톤으로, 2020년의 중-유럽 화물열차 ‘창안호(长安号)’는 3,600회를 돌파하는 등 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산시성의 사회 물류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총 54,906만 위안으로 각 업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그림 5] 2011년-2019년 화물 수송량 및 수송 구조



자료 : 산시성 통계국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 1.4 종합

종합하여 정리하면 산시성의 전반적인 경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산업 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있지만,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산시성의 GDP 비중은 비교적 낮고 수년간 상승하지 않았다. 제3차 산업 생산액과 제2차 산업 생산액차이가 크지 않아 산시성의 GDP중 제3차 산업의 생산액은 여전히 상승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 분야는 대외 무역 총액이 매년 증가했지만, 2020년까지 수출입 총액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의 불과 1%만 차지하고 있어서 대외 무역 분야에 발전할 공간이 크다. 물류 분야에서 산시성 현대물류업의 발전은 초기 효과를 거두었지만, 주요 운송방식은 여전히 도로와 철도 위주로 하고 있다. 산시성의 화물운송 구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복합운송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시성은 경제구조 최적화 추진 및, 대외 개방구역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서부지역 중-유럽 화물열차 '유통센터(集散中心)' 건설, 서부도로의 터미널, 국제항공운송 허브 건설하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산시성 경제 발전 제고하고, 중국 서부 경제 업그레이드의 핵심이자 유라시아 무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 2 '일대일로' 하의 산시성 경제 혁신 발전 경로

산시성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서 산시성의 대외개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산시성은 국내 대순환의 중요한 거점(支点)으로 대내순환의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대외순환의 향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유력한 지역 거점으로 하여,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의 독특한 파급효과를 발휘 한다.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며, 현대 물류 새로운 체계를 완비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발전을 확장하고, 산시성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 투자를 늘린다. 또한 인재 영입을 중시하며, 건설 효율을 높이고, 관리 수준을 높이며, 혁신적인 발전을 실현하도록 한다.

## 2.1 '자유무역구+' 대외 개방의 고지를 열어 새로운 국면 건설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대외개방 전략의 중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내와 국제 시장을 소통하고, 국내외 '쌍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에 위치해 강과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역의 특색적인 발전을 위해 육상 터미널과 공항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산업'으로 임공, 임항(临空、临港)등 산업의 집중을 촉진 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금융'으로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유치, 대외무역의 잠재력을 자극하며, 투자, 대출 및 규제 등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보안을 추진하고 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FTA+통상구(口岸)'으로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 투자 편리화를 추진해 전자 통상국의 발전 잠재력을 발휘 하고 있다.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잠재력 발휘를 핵심으로 하여, 자유무역시험구의 지리적 범위를 극복하고,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산업유발 효과를 확대시킨다. "FTA+"를 기본으로 하여 제조업, 소매업, 물류, 금융 등 산업의 잠재력을 자극하여 무역전환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 2.2 '내륙창고+해외창고' 전자상거래 새 모델 시행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공항신도시에 입지한 '내륙창고+해외창고' 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 혁신모델은 '해외창고'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추진 정책이다. '해외창고' 모델은 창고를 해외에 배치해 배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빨리 순환되는 인기 상품에 적용한다. 산시성이 수출하는 특산 상품은 '해외창고' 모델에 적용 되었지만, 현재 산시성의 수출 구조가 단일화에서 다원화되는 등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해외창고'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 임대료, 창고의 저장비용, 인건비 등은 해외보다 싸고 혜택이 많다. 그래서 유통기간 요구가 높지 않고, 재고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고, 가치가 낮은 물건을 산시성에서 먼저 통관후 '내륙창고'에 저장했다가 수요가 생기면 곧바로 포장해서 보내면 통관 시간도 절약하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고효율, 저비용, 대용량, 제로중계, 일체화된 '내륙창고+해외창고'의 전자상거래 물류 혁신 모델은 지역 특색, 대외 무역의 번영을 추진하고 경영환경의 최적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 2.3 'Land+Rail+Air' 복합운송 산시성 신 물류 건설

교통운수업은 국민 경제에서 기초 산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번영은 교통운수 발전을 이끌며, 양자는 서로 촉진하고 상부상조한다. 현재 산시성 육상+철도, 해상+철도, 육상+항공 복합운송 등 세 가지 운영 방식은 이미 초기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집약화가 부족하다. 따라서 도로와 철도 및 항공 간 상호 연결과 교류를 촉진하고 '육상+항공' 통로를 최적화하며, '국제+국제'와 '국제+국내' 및 '국내+국내'의 도로와 철도 및 항공 복합운송을 통한 효율적인 화물 유통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의 새로운 물류 방식을 건설해야 한다. 인프라 부분에서 철도운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철도운송 밀도를 확대하며, 도로망 차등화 및 항공운송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 정보 플랫폼을 통합하여 공유 플랫폼을 추진함으로써 운송 방식 간 정보의 원활하지 못한 흐름을 타파하고, 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속도를 향상시킨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 2.4 '디지털 경제' 산시성 경제의 새로운 동향 추진

산시성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实体经济)의 심도 있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산시성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육성할 것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산시성은 농업 및 금융 등의 업계에서도 디지털경제의 응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링(杨凌)현대 농업시범단지에서는 신품종 및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농업분야 신업체 및 신산업을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디지털 '장안(长安)호'를 모색 '장안호' 서비스 품질 향상, 스마트화 관리 수준 향상, 디지털 정부 원격 커넥션의 업무 등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5G,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수용하고 데이터 처리, 다양한 언어 인식 등 여러 기능을 갖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신형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를 통한 실물 경제 산업 네트워크화,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해 신산업 활성화를 자극할 계획이다.

## 3 한중 협력 제안

'일대일로'의 제안은 중국 및 연선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했다. 산시성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시작점이자 일대일로의 중요한 국내 연결점이다. 반면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일대일로 연선의 중요한 국가로 '일대' 및 '일로'가 동북아로 연결되는 중계 허브이다. 한중무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긴밀한 무역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일대일로는 산시성과 한국의 깊은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한중(산시성)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한중의 공동 발전을 위해 산시성과 한국은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국가 뉴딜 정책과 결합해 투자, 물류, 디지털경제, 생태환경, 친환경 인프라 건설, 현대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물류적인 차원에서 중국(산시)과 한국이 협력을 심화, 공동발전할 것을 제안한다.

## 3.1 한중 무역 협력 경로 확대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은 한국에 강력한 경제제품 수출능력을 갖게 한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며, 산시성은 중국 서부지역의 중요한 한 성으로 넓은 시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중 협력은 선천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산시성 제2의 무역 파트너가 됐다. 산시성과 한국은 '일대일로' 정책이 가져온 플랫폼 효과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파트너십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삼성, 현대 등의 산시성 투자 확대를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장려하며, KOTRA 시안지사를 새로운 축으로 하여 삼성의 대 산시 투자모델을 통해 한국의 프리미엄 제조, 반도체, 의류, 영화 등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투자, 다차원 심도 있는 정보 전달 등의 활동을 통해 산시성과 한국의 우위 산업의 협력을 촉진하며, 협력 모델을 창조하고, 협력 채널을 넓히고, 쌍방의 경제 공동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2 한중 통합 물류통로 경로

2019년 9월 중국 국무원이 발간한 「교통강국 건설요강」은 중국이 2035년 '글로벌 123 패스트 화물 물류권(物流圈)'(국내 1일, 주변국 2일, 글로벌 주요 도시 3일에 화물 도착)을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시성은 중국 '팔종팔횡(八纵八横)' 철도망의 중요한 허브로, 교통 강국 건설은 산시성의 교통 허브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산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 면적이 제한적이어서, 운송 통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시성과 한국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산시성은 자체 종합 운송망을 더욱 보완하고 항공운송 센터를 건설하며 항공물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쪽과 북쪽으로 운송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글로벌 123 화물 물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시성과 공동으로 중국(산시성) 항공운송센터의 건설을 모색하며, 'Land+Rail+Sea+Air' 복합운송을 대폭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화된 고효율 종합물류망을 구축하여, 화물운송시간을 단축하고 수송효율을 높여 양측의 경제효과를 크게 해야 한다.

### 3.3 한중 물류센터 구축

산시성의 대외 개방 정도가 높아지고 현대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9년 산시성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1,994억 위안이고, 전자상거래 구매액은 1,021억 위안으로 이 중 대륙 이외 매출액은 18.96억 위안, 구매액은 2.65억 위안이다. 한국은 수출지향형의 선진국으로서 코로나19 시기에 '인터넷+' 경제가 가져올 성장기회를 파악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현대 물류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동서와 남북을 있는 산시성을 발판으로 삼아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산시성의 편리한 수출입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창고'와 '내륙창고' 등의 물류 모델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택배물류센터와 해외창고 유통센터(集散中心)를 건설하며 중국(산시성)과 한국 종합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산시성에 편리하고 현대화된 종합적인 현대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양측의 무역 활동을 위해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4 중한 물류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업그레이드는 현재 산업 업그레이드 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서 각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디지털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국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비전-세계디지털 강국 되기」(2020), 중국 정부는 「교통운수 분야 신규 인프라 구축 지도의견」(2020) 등을 통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6월 산시성은 기업 디지털화 전환 포럼을 열고 기업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검토했다.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는 기업 혁신의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류산업은 현대 산업구조에서 기초적이고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갈수록 디지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산시성)은 첨단 정보기술(IT) 통합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첨단 정보기술 개발과 응용을 확대하고, 현대 복합형 프리미엄 정보인력 통합 육성, 정보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물류 인프라, 운영 플랫폼 등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현대 물류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한중(산시성) 양국은 경제 네트워크 최적화를 실현하고,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양측이 간단 교류 협력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깨고, 경제무역 협력 통로의 '정체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산업 상호 보완 채널을 넓히며, 더 넓은 분야,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시성은 경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고, 종합 물류 시스템을 정비해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산시성의 국내순환 안정화, 국외순환의 발전기회의 확대, '일대일로' 제안이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여 산시성과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현대 물류와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요한 거점으로 한국의 KOTRA를 고리로 하여 경제무역의 협력채널을 넓히고, 중국항공운송의 새로운 모델과 복합 운송로를 모색하여, 현대물류기지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을 공동 개발하여 물류산업을 디지털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한중의 강점과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제도를 함께 협상하며 시설공조, 시장공조, 산업 진흥, 싱크탱크 공모, 인재 교육,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공유, 공통 관리를 추진하여 장벽융합, 자원융합, 요소융합의 효과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산시성과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한중(산시성)이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저자: 장안대학교 경제와 관리 학원 왕가오제(王高洁) 인에예(尹叶叶)

장안대학교 중한물류연구원 리저오레이(李兆磊)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 칼럼 원문

## “一带一路”背景下陕西省经济创新发展与中韩合作建议

撰文 | 长安大学 经济与管理学院 王高洁 尹叶叶

长安大学 中韩物流研究院 李兆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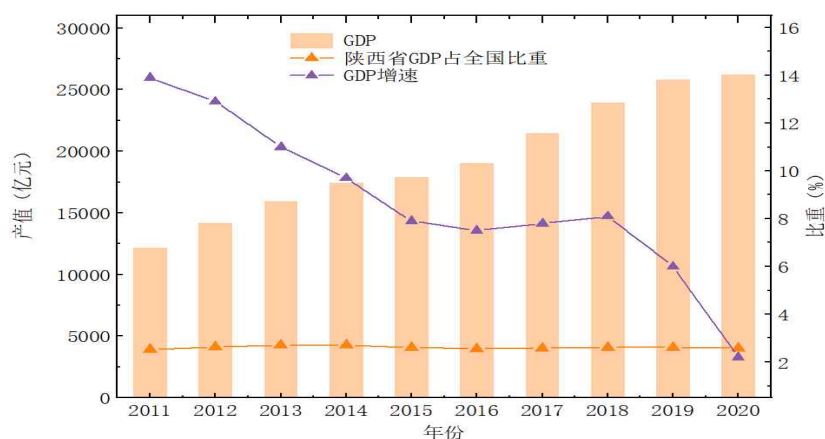
陕西省位于中国大陆承东启西、连接南北的重要枢纽位置，是中国实施西部大开发战略的桥头堡，是丝绸之路经济带上的重要的国际资源集聚平台和链接“一带”“一路”的内陆型枢纽。陕西省紧握“一带一路”倡议和“双循环”新格局建设带来的发展机遇，对内贯彻落实区域发展战略，推动区域协调发展，对外提高开放水平，加强与韩国等毗邻国家的交流合作，进而推动资源优化配置，产业结构调整，助力陕西从内陆腹地跃升为开放前沿，形成与上海东西双向互济，和海南南北遥相呼应的协同发展格局，打造“一带”“一路”陆海联动“双截棍”。

## 1 陕西省经济发展现状

## 1.1 全省经济稳定增长，产业结构不断优化

2011—2020年，陕西省GDP总体稳定增长，从2011年的12175.06亿元增长到2020年的26181.56亿元，增长速率逐年趋于稳定，初步实现了经济发展由强调速度到重视质量的转变。同时，2011—2020年，陕西省第一、二、三产业持续增长，第一产业和第二产业产值从2011年的1187.39亿元和6484.32亿元分别增长到2020年的2267.54亿元和11362.58亿元，增幅达一倍，而第三产业产值则从2011年的4503.35亿元增长到2020年的12551.74亿元，增幅近三倍。第三产业产值的快速提升推动陕西省三次产业占比的不断调整，促进陕西省产业结构持续优化，陕西省经济发展稳定向好。

图1 2011-2020年陕西GDP总量及增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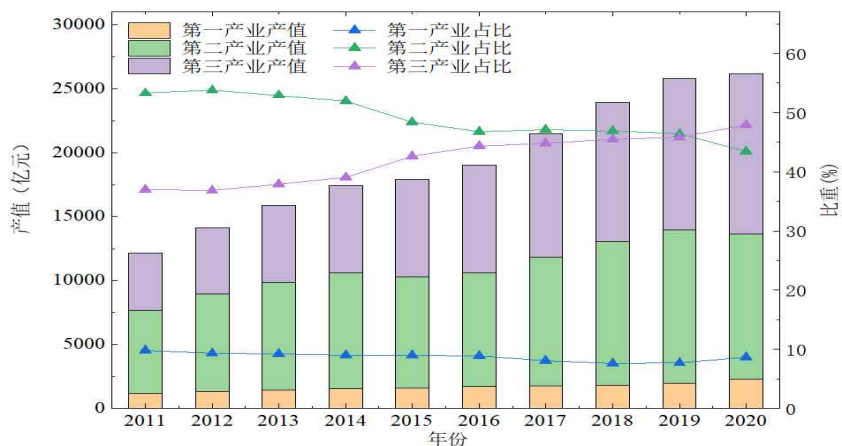


数据来源：中国统计局和陕西省统计局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图2 2011-2020年陕西省三次产业产值及产业结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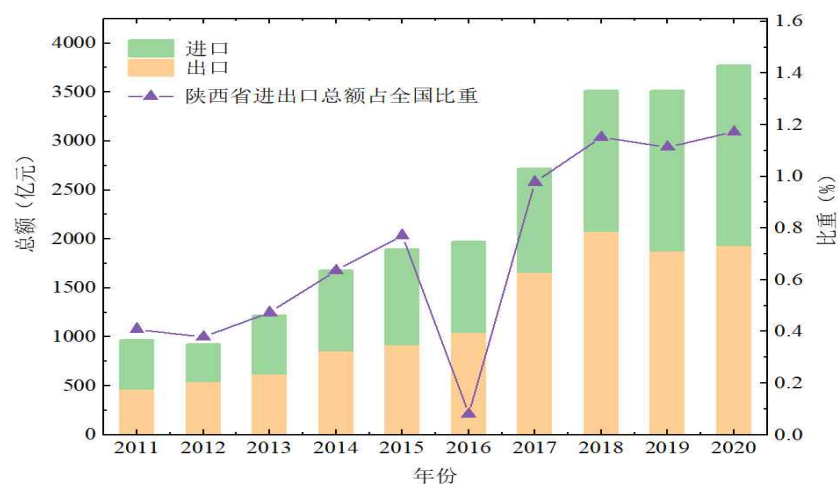


数据来源：陕西省统计局

## 1.2 对外贸易整体稳定，开放水平稳步提升

2011-2020年，陕西省进出口总额从2011年的966.61亿元增长到2020年的3772.12亿元，增幅将近五倍。陕西省进出口总额占全国进出口总额从2011年的0.41%增长到2020年的1.17%，增幅将近三倍，表明陕西省对外开放水平不断提升。从贸易国别来看，2011-2019年，陕西省与韩国贸易总额从2011年的58.22亿元增长到731.08亿元，贸易总额占陕西省外贸总额的比重从2011年的6.02%增长到2019年的20.8%。韩商在陕西实际投资额从2011年的29万美元增长到2019年的24.06亿美元，而且2019年韩商在陕投资额占全省实际利用外资额的31.2%。可见，韩国愈发成为陕西省重要的国际贸易伙伴。

图3 2011-2020年陕西省进出口总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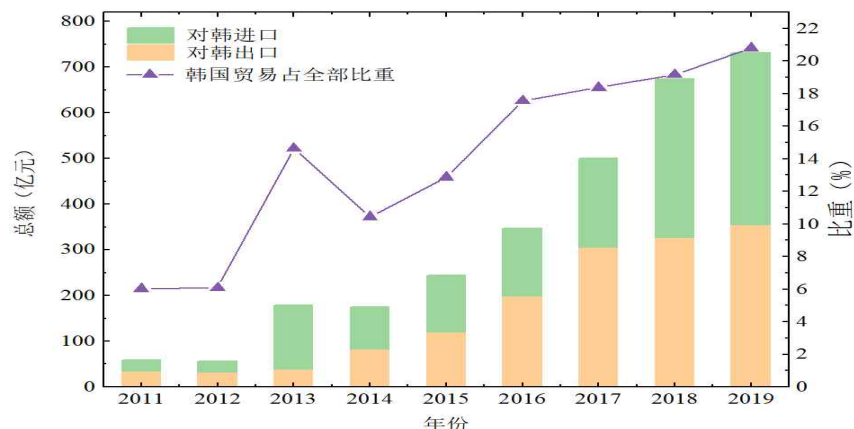


数据来源：陕西省统计局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图4 2011-2019年陕西省与韩国贸易情况



数据来源：陕西省统计局

## 1.3 现代物流持续发展，服务体系日趋完善

2011-2019年，陕西省物流基础设施不断建设，铁路营业里程从2011年的4449公里延长至2019年的6224公里，公路线路里程从2011年的151986公里增长至2019年的180070公里，国际通航城市从2011年的44个增加到2019年的71个，现代综合交通网络不断完善。同时，陕西省货运总量从2011年的120916万吨增加到2019年的154758万吨，“长安号”中欧班列2020年全年开行突破3600列，货运总量持续提升。此外，陕西省社会物流总额不断提升，2019年总额达54906.3亿元，有效推动了陕西省各行业的持续发展。

图5 2011-2019年陕西省货运量及货运结构



数据来源：陕西省统计局

综上所述，陕西省整体经济持续向好，产业结构不断优化，但陕西省GDP占中国GDP的比重较低且多年未有提升，第三产业的产值与第二产业产值相差也较少，陕西省GDP及第三产业产值仍有待提升。在外贸领域，陕西省进出口总额逐年提升，但到2020年，陕西省进出口总额只占中国进出口总额的1%，陕西省对外贸易仍有较大提升空间。在物流领域，陕西省现代物流业发展初具成效，但主要运输方式仍然以公路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陝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和铁路为主, 陕西省货运结构亟待优化, 多式联运水平有待提高。为此, 陕西省要加快推进经济结构优化调整, 加强对外开放高地建设, 建立中国西部地区中欧班列集散中心, 西部公路码头和国际航空货运枢纽, 多举措提高陕西省经济发展水平, 建设成为中国西部经济升级新核心和欧亚贸易连接新节点。

## 2 “一带一路”下陕西省经济创新发展路径

为进一步激发陕西省经济发展潜力, 提高陕西对外开放水平, 陕西作为国内大循环的重要支点, 以内循环稳步发展促进外循环突破式提升, 以陕西自由贸易试验区为有力抓手, 发挥内陆自由贸易试验区的独特带动效应, 探索发展跨境电商新模式, 健全完善现代物流新体系, 积极培育数字经济新业态, 多方面协同拓展进步, 助推陕西省提高经济定位, 加大资金投入, 注重人才引进, 提高建设效率, 提升管理水平, 实现创新发展。

### 2.1 “自贸区+”打开对外开放高地建设新局面

自由贸易试验区不仅是新时期我国对外开放战略的重要抓手, 同时也是沟通国内国际两个市场、畅通内外双循环的重要平台。陕西自由贸易试验区由于其独特的地理位置, 即地处内陆, 不沿江靠海, 决定其要大力推进陆港和空港建设以走具有地域特色的发展之路。以“自贸区+产业”促进临空、临港等产业的聚集; 以“自贸区+金融”刺激陕西自由贸易试验区招商引资、对外贸易的潜力, 促进金融体系包括支付、信贷、监管等的建立和完善; 以“自贸区+口岸”推进陕西自由贸易试验区投资便利化进程, 释放电子口岸的发展潜力。通过释放陕西自由贸易试验区潜能为核心, 以突破自由贸易试验区地理范围、加大陕西自由贸易试验区辐射带动作用为目的, 以“自贸区+”为本, 刺激制造业、零售业、物流、金融等产业的叠加潜能, 推动对外贸易转型升级。

### 2.2 “内陆仓+海外仓”开展跨境电商新模式

陕西自由贸易试验区依托空港新城建立“内陆仓+海外仓”跨境电商物流创新模式是弥补目前“海外仓”模式不足的有效措施和推进对外贸易发展的重要推手。“海外仓”模式将仓储置于海外不仅缩短配送时间, 而且能够根据海外市场变化而做出应对, 适用于库存周转快的热销商品。陕西出口特色产品较适用于“海外仓”模式, 但目前陕西省出口的货物结构由单一化向多元化发展, 货物种类越来越丰富, “海外仓”弊端显现。而国内租赁、仓储、人工等费用均比海外便宜, 并且优惠政策多。所以将时间要求不高、库存占用量大、价值低等的物品在陕西口岸先通关存储在“内陆仓”内, 一旦有需求, 立马打包发出, 既节省通关时间, 又节省物流成本。探索高效率、低成本、大容量、零中转、一体化的“内陆仓+海外仓”跨境电商物流创新模式是具有地方特色、推动对外贸易繁荣发展、优化营商环境等的有效方法。

### 2.3 “公铁空”联运打造陕西新物流

交通运输业是国民经济的基础产业, 能够促进区域经济发展, 而区域经济繁荣又带动交通运输发展, 两者相互促进、相辅相成。目前陕西公铁联运、海铁联运与陆空联运三种运作模式已经初具规模但缺乏集约化。所以推动公路铁路航空之间的相互衔接和交流, 打通、优化“陆上+空中”通道是重点, 通过“国际+国际”之间、“国际+国内”之间、“国内+国内”之间的公铁空联运实现货物的高效流通, 打造自贸区新物流。在基础设施方面, 加大铁路运输基础设施建设, 扩大铁路运输密度网; 推进公路网等级建设以及航空运输的突破升级。在平台建设方面, 主要是整合现有信息平台推进共享平台建设, 以打破各运输方式之间的信息不畅通、促进各方式之间的衔接为目的, 降低物流成本, 提升物流速度。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 2.4 “数字经济”驱动陕西经济新业态

陕西省在数字经济领域也积极探索，不断促进数字经济与实体经济的深度融合，推动数字经济成为陕西经济增长的新引擎，为区域发展孕育新动能。目前，陕西省在农业、金融等行业进行了一系列应用探索，在杨凌现代农业示范园区积极引进新品种、新技术，大力发展农业领域新业态、新产业；进行数字丝绸之路建设，探索数字长安号，提升长安号服务质量和智能化管理水平；探索数字政府远程互联的政务新模式等。通过5G、大数据及人工智能等新兴技术建立具备容纳大规模数据并进行数据处理、识别多种语言等多种功能的大数据支撑平台，加强新兴信息技术基础设施建设，双管齐下，从而实现通过数字经济推进实体经济产业互联网化、产业数字化，以刺激新产业。

## 3 “一带一路”下中韩合作建议

“一带一路”倡议的提出为中国及沿线国家经贸合作提供了新的契机。陕西省是丝绸之路经济带的起点，也是“一带”和“一路”重要的国内连接点。而与中国毗邻的韩国则是“一带一路”沿线的重要支点国家，是“一带”和“一路”向东北亚延展联通的中转枢纽。中韩贸易由来已久，早已逐步建立了密切的贸易合作伙伴关系，“一带一路”倡议为陕西省和韩国的深度合作提供了新平台，是推进中（陕西）韩合作进入新阶段的重要力量。为推动中（陕西）韩协同发展，陕西省和韩国要积极融入“一带一路”倡议，结合韩国政府的国家新政，在投资、物流、数字经济、生态环境、基础设施绿色化建设、现代金融服务等领域开展更深层次的交流与合作。基于此，结合相关研究成果从物流视角提出中国（陕西）和韩国深化合作、协同发展的建议。

## 3.1 拓宽中韩经贸合作渠道

出口导向型经济体系使韩国具有强大的经济产品输出能力。中国是世界第二大经济体，陕西省是中国西部地区的重要省份，拥有广阔的市场、相对低廉的人力资源等优势条件。中韩合作具有先天优势，而且韩国已经成为陕西省的第二大贸易伙伴国。新的时期，陕西省和韩国要充分发挥“一带一路”倡议所带来的平台效应和《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签署所产生的伙伴关系效应，进一步加强经济贸易合作，吸引并鼓励三星、现代等企业到陕西省扩大投资，以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西安分社为新纽带，充分借鉴三星对陕投资模式，促进韩国在高端制造、半导体、服装、影视文化等多领域对陕投资，通过开展跨国投资、多维深度信息传递等活动促进陕西省与韩国对接优势产业领域，创新合作模式，拓宽合作渠道，推动双方经济共同发展。

## 3.2 畅通中韩综合运输通道

2019年9月，中国国务院印发《交通强国建设纲要》指出中国要在2035年基本形成“全球123快货物流圈”（国内1天送达、周边国家2天送达、全球主要城市3天送达）。陕西省是中国“八纵八横”铁路网的重要枢纽，交通强国建设将进一步增强陕西省的交通枢纽地位。而韩国作为陕西的重要贸易伙伴国，地处朝鲜半岛南部，三面环海，陆地面积有限，运输通道短板明显。因此，陕西省和韩国要取长补短，合作共赢。陕西省要进一步完善自身综合运输网路，建设航空运输基地，大力发展航空物流，向东向北延展运输范围，韩国要积极对接中国“全球123快货物流圈”，与陕西省共同探索建立中（陕西）韩航空运输基地，大力发展“公铁海空”多式联运，构建现代化高效综合运输通道，缩短货物运输时间，提高运输效率，进而提升双方经济效益。

## 3.3 构建中韩现代物流基地

随着陕西省对外开放程度的提升和现代信息技术的飞速发展，电子商务快速兴起。2019年，陕西省电子商务销售额达1994.32亿元，电子商务采购额达1021.6亿元，其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中大陆以外的销售额和采购额分别达18.96亿元和2.65亿元。韩国作为出口经济导向型发达国家，在全球新冠疫情大流行的时期为把握“互联网+”经济所带来的发展机遇要构建便捷高效的现代物流体系。韩国要以承东启西、连接南北的陕西为立足点，以陕西自贸试验区为基点，充分利用陕西省便利的进出口政策，综合应用“海外仓”“内陆仓”等物流模式，建设跨境电子商务快递物流中心、境外仓储中心和集散分拨中心，探索建立中国（陕西）—韩国综合物流服务平台，在陕西建立便利化、现代化的综合现代物流基地，为双方的商贸活动提供高水平物流服务。

### 3.4 推动中韩物流数字化转型

数字化升级作为当前产业升级发展的重要方向受到各方重视。中韩国政府分别相继出台了《文在寅政府新愿景——成为世界领先的数字国家》（2020）、《关于推动交通运输领域新型基础设施建设的指导意见》（2020）等一系列综合规划促进各自全产业领域的数字化升级。2021年6月，陕西省举办企业数字化转型论坛，研讨企业数字化升级相关事宜。可见，数字化升级正逐步成为企业创新发展的重要趋势。物流业作为现代产业格局中的基础性、支撑性产业愈发需要完成数字化转型。为此，中（陕西）韩要建立高端信息技术联合研发中心，加大对人工智能、大数据、5G等高端信息技术研发与应用，联合培养现代复合型高端信息人才，加快信息技术成果转化，推动物流基础设施、运营平台等数字化升级，提升现代物流数字化水平。

## 4 总结

“一带一路”下中（陕西）韩实现经济网络的布局优化、产业结构的转型升级需要双方打破简单交流合作的传统模式，深度剖析经济贸易合作通道的“堵点”，拓宽产业互补渠道，在更宽领域、更大范围、更深层次开展合作。为此，陕西省要全面推进经济结构调整，提升对外开放水平，完善综合物流体系，实现创新发展。韩国同时要把握陕西省稳固国内循环，拓展国外循环的发展机遇，充分利用“一带一路”倡议提供的新平台，开展和陕西省的深度交流与合作，以现代物流为切入点，以陕西自由贸易试验区为重要立足点，以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为纽带拓宽经贸合作渠道，通过探索中韩航空货运新模式和多式联运畅通综合运输通道，构建现代物流基地助力跨境电商蓬勃发展，联合开发高新信息技术助力物流业数字化升级，进而充分利用双方的优势与长处，推进制度共商、设施共建、市场共构、产业共兴、智库共谋、人才共育、数据共享、平台共用、管理共进，达到壁垒融解、资源融合、要素融汇的效果，最终激发陕西和韩国经济增长新活力，实现中（陕西）韩互利共赢、协同发展。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의 신선 식품 수출입 통계
- ▶ 전문가 칼럼 : 일대일로'배경 하에 산시성(陕西省) 경제혁신 발전 및 한중 협력 제안
- ▶ 동향 & 뉴스

## 동향 & 뉴스

### 해운 · 항만 · 물류

- 「상하이시 위험화물 도로운송업 안전관리 긴급 통지」 발표
- “상하이시 종합교통발전 14·5 계획” 발표, 10가지 주요 과제 제시
- 상하이시, 푸둥신구(浦东新区) 법규 제정 통과
- 컨테이너 부족 및 운임 상승에 대한 교통운수부의 답변
- 7월 1일부터 해상운임 다시 상승
- Ningbo저우산항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 이미 1,500만 TEU 초과
- 중국 콜드체인물류 발전 보고서 발표
- 중국 5월 수출 전체 통관시간 3시간 이내로 압축
- 장강항로계획설계연구원과 창장웨이양로처가 합작 협의를 체결
- 물동량 29% 증가! 방성항 항만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
- BESTSELLER와 머스크 새로운 협력 관계 맺어, 탄소중립 해운제품 사용
- 태창항 컨테이너 4기 터미널 정식으로 가동
- MSC, 컨테이너선 5척 추가 매입

### 해양 · 수산

- 「저장성 해양경제발전 '14·5' 계획」 발표
-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바다배출의 국제영향' 세미나 개최
- 선전, 손해배상성 생태환경 복원 모델 최초 모색
- 「텐진시 해양경제발전 '14·5' 계획」 발표
- 상하이 해양생산총액 전시 GRDP 25% 이상 차지
- 「저장성 자연보호지 시스템 발전 '14·5' 계획」 발표
- 중국 최대 해양종합과학조사실습선 '중산대학(中山大学)호' 시항 성공
- 저장성 저우산 스마트해양산업 엔지니어 협동혁신센터 운영 시작
- 「저장성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과학기술 혁신 액션플랜」 발표
- 「저장성 해양생태환경보호 '14·5' 계획」 발표